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9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영양만점 ‘두부’ 식탁에 배달 소비자 건강 우리가 책임 진다

화순 식품업체 ‘맑은 물에’

“맛 있고 영양 많은 두부로 소비자들의 건강식단 우리가 책임진다.”

식품 제조업체 ‘맑은 물에’(대표이사 김석원)가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영양 만점’ 두부 홍보에 전진원이 발벗고 나선다는 전락을 세웠다.

‘공기 좋고 물 좋은’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맑은 물에’는 ‘꿈·사랑·정직’을 사훈으로 내건 사원 40여명의 중소기업이다.

두부·묵·콩나물을 만드는 1차 제조식품 회사로서 원료·제조·유통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사원들 모두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내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청정제품들 학교 급식 보급

신선하고 안전한 원재료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원료는 안전성을 위해 엄격한 산지관리를 통한 원료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또 주원료인 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

닌(NON-GMO) 콩만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렇듯 최고 품질의 콩과 고급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콩나물은 무농약 콩과 식용물로 144시간 재배해 시장에 내놓는다. 도토리·검은깨·단호박을 이용한 묵은 안전성을 인증 받고 학교급식으로 보급되고 있다.

원재료 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응모에서 식품에 위해되는 요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철저한 소독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사원들은 생산 라인에 배치되기 전 에어(air) 샤워를 하고, 소독수로 손을 씻고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두부·묵 제조업체 ‘맑은 물에’는 이번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올 매출 100억원 달성을 위한 힘찬 질주를 펼친다는 각오이다.

“맑은 물에”는 지난 2008년 9억원을 투자해 공장 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 공

올 매출 100억 목표 전력 질주

셋기에서 완제품 포장까지 전과정이 자동 처리 되고 있다.

“맑은 물에”의 두부 1일 생산량은 콩 100가마(50kg짜리) 분량 15t에 달한다. 광주·여수·순천·목포 등 전남권 뿐만 아니라 경남 함안까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맑은 물에’는 지난해 총매출 8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맑은 물에’는 이번 대회에서 포기없는

안주를 다짐했다. 평소 산악회 활동으로 체력을 다져온 만큼 끝까지 달리는 것은 자신 있어 한다.

이영만 관리부장은 “이번 대회가 사원들의 진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호랑이 제1선발 “내가 꿰찬다”



KIA 日 전문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윤석민·로페즈·양현종 연습경기서 위력투

140km대 직구뿌리며 에이스 향한 경쟁 돌입

한국시리즈 2연패를 노리는 KIA 타이거즈 마운드가 순항을 시작했다.

KIA는 9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두 번째 자체 홈백전을 치렀다. 6회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5-2 승리를 거둔 홈팀 마운드는 선발 양현종을 필두로 로페즈, 윤석민, 손영만이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백업은 김희걸, 이상화, 박상혁이 투수로 나섰다. 군제대 선수인 김희걸, 이상화와 왼손불펜 후보 박상혁이 포지한 백업 마운드가 1군 합류를 위한 테스트 무대였다면 홈팀 마운드는 2010 시즌 KIA의 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였다.

양현종, 로페즈, 윤석민은 지난 시즌과 마

찬가지로 ‘에이스’ 호칭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될 확고한 선발진. 세 명의 투수는 첫 피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이브 피칭을 건너뛰고 곧바로 실전피칭에 돌입한 윤석민과 로페즈는 140km가 넘는 직구를 뿌려 ‘역시’라는 찬사를 들었다. 윤석민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까지 나왔다.

지난 4일 라이브 피칭 후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던 양현종도 정상적으로 피칭을 하며 직구 구속을 145km까지 끌어올렸다. 2이닝 동안 3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양현종은 공의 무브먼트와 스피드 모두 스키모토 투수 코치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3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로페즈는 안타 없이 삼진 하나를 뽑아내며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13개의 공을 던진 로페즈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 필살기 심커를 앞세운 변함없는 위력투로 ‘OK 사인’을 받았다.

역시 1이닝을 소화한 윤석민은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1자책)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기록상으로는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윤석민도 스키모토 코치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이날 윤석민은 자신의 특기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물론 새로 익힌 심커까지 구사하면서 첫 실전 피칭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구질 점검에 초점을 맞췄던 윤석민은 스키모토 코치로부터 뛰어난 공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변화구의 위력을 더하기 위해 직구 구사율을 높이라는 주문도 받았다.

이날 홈백전에서는 선발진들은 물론 KIA의 핵심 타선도 꽤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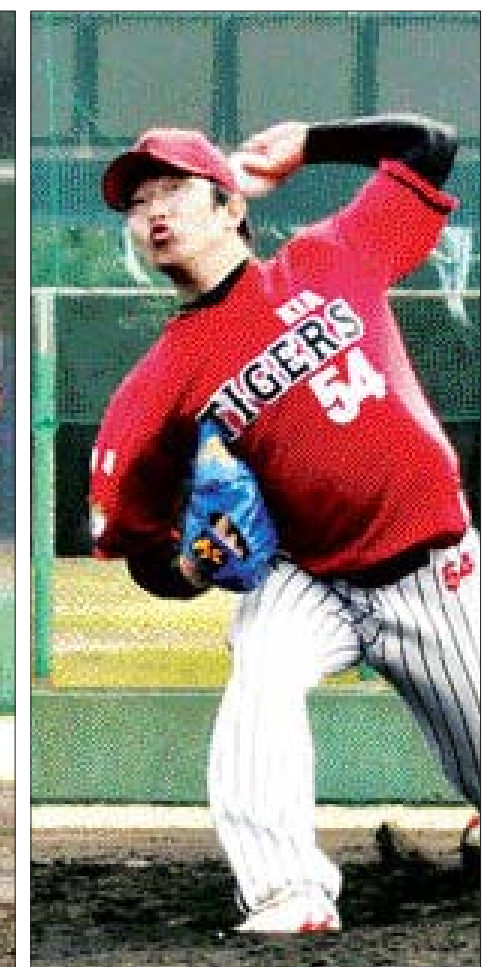
백업 3번과 4번을 맡은 나지완과 최희섭은 나란히 2개의 안타를 뽑아냈고, 타격폼을 수정하고 있는 이현근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멀티플레이어 최용규는 2루타를 포함한 2개의 안타로 나홀로 3타점을 올려 맹활약했다. /wool@kwangju.co.kr



〈윤석민〉



〈로페즈〉



〈양현종〉

“옥석을 가려라”... 바빠진 전력분석팀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 체크 올시즌 주전 밀그림 구상

2010시즌을 준비하는 KIA 타이거즈 전력분석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전지훈련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KIA 타이거즈의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됐다.

홈백전을 시작으로 몸을 풀 KIA는 앞으로 투산, 소프트뱅크, 히어로즈, 롯데와의 경기를 갖고 컨디션 조율에 나선다. 실전감각을 쌓는 게 연습경기의 주요 목적이지만 사실상 전지훈련지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는 ‘옥석고르기’를 위한 작업과 정이다.

연습경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바빠진 팀은 전력분석팀이다. 선수들 경기내용 하나하나가 2010시즌 구상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자체 홈백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경기다. 홈백전이 진행되면 경기장 내 사무실은 각종 장비와 오랜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전력분석팀의 평가가 바로바로 쏟아지는 KIA의 ‘핵심 전략지’가 된다. 경기가 시작되면 투구 모습을 녹화할 비디오 카메라는 물론 공의 빠르기를 측정할 스피드건도 등장한다. 공 하나하나, 선수들 각각의 플레이가 기록지에 고스란히 남겨진다.

투수들의 투구 모습과 공 스피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하는 스키모토 투수 코치도 경기중에는 전력분석팀과 자리를 함께 한다. 이닝이 마무리될 때마다 투수들은 사무실로 호출돼 스키모토 코치로부터 따듯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한다.

KIA의 ‘핵심 전략지’에서 2010 프로야구 그라운드에서 오를 선수들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생야구도 내년부터 주말경기

대한야구협 초·중·고·대학 토너먼트, 리그제로 전환

축구에 이어 학생 야구에도 주말리그가 도입된다.

대한야구협회(이하 협회)는 9일 학생 야구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한국야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의 토너먼트 대회를 2011년부터 주말리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김인식(63)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 위원장을 맡은 ‘주말리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학생 야구는 3월부터 주중에 도 계속 열린 탓에 학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강승규 야구협회장도 지난해 12월 야구인의 밤 행사 때 ‘대학야구를 주말에 리그전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계자 사이에서도 주말리그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협회는 “초·중·고 야구팀과 선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교 야구가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운영돼 저변이 줄어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주말리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교 야구팀의 숫자는 2006년 245팀에서 2008년 233팀으로 줄었고, 선수 숫자도 2006년 5천187명에서 2008년 5천62

명으로 감소했다.

주말리그가 제대로 도입되면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학원 스포츠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 야구선수 가운데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구경백 협회 이사는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학생에게 운동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관행을 깨고 학생의 장래를 위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말리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18일 출범하는 추진위에서 마련된다. 추진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야구협회,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연합뉴스